

시나리오

| 제목 | 이젠 모르는 게 죄가 되는 시대 |
|---|-------------------|
| 내용 | |
| <p>#1 오전, 집, 출근 준비</p> <p>“아.. 월요일”</p> <p>주인공은 눈을 뜨자마자 고개를 베개에 비비며 두 다리를 쭉 뻗는다. 그는 늘 집 안의 모든 가전제품과 연동이 되어있는 디지털시계를 차고 있다. 디지털 시계가 주인공의 생체 변화를 인지하자마자 침대에서 발사된 스크린이 천장을 향해 띄우며 간단한 수면 피드백이 시작된다.</p> <p>[안녕히 주무셨어요? 총 수면시간 6시간 30분 중 렘수면 1시간 12분, 깊은 수면 3시간 40분, 빠르고 느린 안구운동 1시간 38분 지속되었습니다. 오늘 스트레스와 긴장 상황이 예상됩니다.]</p> <p>피드백은 1분 30초 내외로 끝이 난다. 그 소리를 들으며 일어난 주인공이 출근 준비를 위해 두 팔을 쭉 뻗으며 안방을 나간다. 샤워와 양치를 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렌즈를 끼는 것이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정한 속도와 패턴으로 옷을 입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다. 그와 동시에 디지털시계에서 부드러운 음성이 흘러나온다.</p> <p>[오전 8:46, 평소보다 2분 이른 시각입니다. 현재 비가 내리고 있으며, 교통량은 적당합니다. 인바디 측정 결과를 들으시겠습니까?]</p> <p>“됐네요.”</p> <p>신발을 신고 일어서는 순간 어제 야식 먹은 것이 딱 들킨 모양이다. 주인공은 고개를 절레절레 지으며 집을 나선다.</p> <p>#2 오후, 직장, 업무 중</p> <p>현재 시각은 오후 3시, 약속 시간이 되자마자 의뢰인이 주인공이 앉아있는 사무실로 들어선다. 잔뜩 주눅이 든 얼굴로 들어온 노부부가 주인공의 앞에 앉는다. 그와 동시에 책상 위로 준비 되어있던 컵의 바닥에서 물이 차오르고, 노부부는 익숙하게 책상에서 컵을 뿔아 빼 그 옆에 내려놓는다.</p> <p>“안녕하세요. 바로 상담 시작하겠습니다.”</p> <p>출근은 오전 10시, 퇴근은 오후 4시. 한 시간 안에 완벽하게 상담을 마무리해야했다. 주인공은 월요일의 피곤을 느끼며 속으로 파이팅을 외쳤다.</p> <p>“해당 사건에 대한 LAI상담을 의뢰하셨죠?”</p> <p>“예.”</p> <p>주인공의 직업은 AI상담사이다. 그 중에서도 LIA(Law Artificial Intelligence)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시대가 바뀌며 변호사의 역할은 다소 축소되었다. 이미 LAI가 판례 검색과 분석, 법률 문서 작성, 적용할 법률에 대한 위법성 판단, 각종 인공지능 증언 수집 및 조작까지 법률기관의 실무관 그 이상의 업무를 해내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는 LAI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며, 배당된 LAI의 자료들에 기반하여 일차적으로 상황을 판단한 뒤, 인간적인 직관과 판</p> | |

단요소를 고려하여 변호를 준비한다. 주인공의 역할은 변호사를 고용하기에 앞서 어떤 LAI 회사를 선택할 것인지 의뢰인의 상황과 추가적인 요구사항에 맞게 분석해주고 결정을 돕는 역할을 한다. 많은 직업들이 사라졌고 사라질 위기에 처했으나 AI상담가의 자리는 아직 건재하다. AI를 통한 상담은 의뢰인의 요청에 맞는 결과를 정확하게 제시해주는 것은 하지만,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소통이 불가할뿐더러 어려운 용어들과 작동방식은 다양한 연령층을 사로잡기에는 무리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상황에 맞게 요구사항을 편하게 이야기하고 상담할 수 있는 AI상담사를 아직은 더 선호하는 추세이다. 주인공이 부부 앞으로 여러 회사들이 나열된 종이를 내민다.

“가장 위에 있는 회사가 예산 안에서 가장 적절한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경우에는 가장 최근 개정된 LAI 인증서를 가장 먼저 취득하여 정보의 수집력과 판단력은 물론이고, 승소율이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만...”

주인공이 말끝을 흐린다. 근심이 가득해 보이는 노부부의 얼굴에 부모님이 겹쳐 보이고, 이들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기에 입을 떼기가 쉽지 않다.

“조건이 있는데요, 의뢰인의 아이렌즈 착용이 필수라고 합니다.”

“아이렌즈... 저희가 그런 건 없는데요...”

주인공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다음 회사를 설명한다. 첫 번째 회사가 요구하는 아이렌즈는 AI기능이 포함된 렌즈로, 시력 교정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 특이점이 발견되는 상황에서 즉각 반응하여 자동녹화를 시작한다. 그 영상자료는 소비자가 연동 설정 한 기관에서 3개월 간 보관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주인공 역시 아침에 보험회사와 연동된 아이렌즈를 끼고 나왔다. 그러나 보급 된 지가 2년이 채 되지 않아 값이 비쌀 뿐더러, 노부부에게는 아예 금시초문이었다. 주인공이 렌즈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자 노부부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쉰다. 첫 번째 회사는 이러한 조건을 내세울뿐더러, 새로운 AI법에 맞게 정보를 수집하고 짜깁기 할 수 있어 승소율이 보장되는 유일한 회사였다. LAI회사들 중에서는 독점적이다. 주인공은 다음 대안을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럼 두 번째 회사가 좀 더 나을 듯합니다. 이 회사는...”

결국 노부부는 아이렌즈 착용 조건이 없고, 개정된 법을 피하여 재판에서 쓸 수 있는 자료가 제한적인 두 번째 회사를 선택했다.

#3 오후, 집, 퇴근 후

퇴근한 주인공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으로 쇼핑을 하고 있다. 요즘 급부상한 캠핑 용품이다. VR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쉬는 시간에 가상현실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누워서 여행지의 풍경을 보거나, 집 안을 돌아다니며 도시와는 먼 숲 속을 걸어 다니며 구경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아주 정밀하게 설계된 세트장에서 AR을 통해 직접 물건을 만지며 체험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여가생활은 ‘몸이 지치고 피곤한’ 활동을 급부상시켰다. 실제로 숲 속에서 캠핑을 하고자 떠나는 캠핑족들이 다시 생겨난 것이다. 주인공 역시 캠핑 용품을 장바구니에 몇 개 담아본다.

“혼자 뭘 해.”

그러나 이내 관두고 만다. 같이 갈 친구도 애인도 없을뿐더러 곧 반려로봇을 들일 계획이

기 때문에 돈도 아끼기 위함이다. 많은 사람들이 반려로봇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반려로봇은 사람의 체온까지 모방되어 이미 독거노인들에게 보급된 지는 오래 되었고, 일이 바쁘거나 연애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많다. 주인공은 다시 휴대폰을 켜 반려로봇 커스텀 앱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반려로봇을 본인의 요구에 맞게 마저 설정한다.